

앞으로 가려면 한바탕 가시밭이라

조계종 종정·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안휘성(安徽省) 지주(池州) 노조산(魯祖山) 보운(寶雲) 선사는 병상시에 남자가 오기만 하면 얼른 벽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바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남전보원(南泉普願) 선사가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병상시에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이전의 경지에서 살아들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남자는 아직도 한 개는커녕 반 개도 얻지 못했구나. 그래서야 나귀 해(驢年)가 되어야 한 개나 반 개를 얻으리라.’”

노조보운 선사는 무릇 남자들이 오기만 하면 문득 벽을 향해 앉았으나, 이는 달마가 9년 동안 앉았던 이후로는 아무도 이 영(승)을 다시 시행하지 않았습다.

그러나 노조 선사가 제방에서 부처와 조사를 묻는 선지식들로 하여금 아픔과 가려움을 느낄 줄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전과 노조는 마조의 제자로 사형사제간입니다. 사람들이 바늘과 송곳으로 노조를 찔러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남전이 한 마디 보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의 지나친 도도함을 꾸짖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를 칭찬하면서 마주보고 똥방 내어준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산(靈山)은 말을 그린 것과 같고 조계산(曹溪山)은 말을 가리킨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달마의 면벽과 노조의 면벽은 면벽 그대로가 바로 법문입니다.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노조 선사가 남자들이 찾아오기만 하면 벽을 향해 앉았고 역시 남전이 와도 벽을 향해 앉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승은 말이 없이 그냥 돌아갔지만 남전은 이에 대하여 한 마디 던진 것입니다. 남전 선사는 알맞은 시기를 잘 식별하고 길흉을 잘 알아차리기는 했지만 사실 노조 선사의 속 뜻은 몰랐다고 할 것입니다.

하긴 금을 팔려고 한다면 금 사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선사는 남자가 오기만 하면 왜 꼭 벽을 향해 돌아앉은 것이겠습니까? 앉아있는 것이 선이었습니까? 벽을 향한 것이 도이었습니까? 돌아앉는 것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위하여 앉는 것이었습니까? 남자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이에 대하여 현사바비(玄沙師備) 선사는 이렇게 적어(著語) 하였습니다. “만약 그 때 내가 남전 선사를 보았다면 등쪽에다가 뜯 다섯 장을 찢어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이 노조의 면벽과 같은 도리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도리이겠습니까. 만일 이를 제대로 알아차린 남자가 이 해제대중 속에 있다면 산승은 그에게 “그대의 불법이 같 곳이다”고 하랄할 것입니다.

병술년 하안거 해제대중은 만약 그 뜻을 아직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절대로 귀신 골속에서 일음일리로 헤아리지 말 것이며, 만행길에도 걸맞 속에 꼭꼭 집어넣고 다니면서 잠구하시길 바랍니다.

노조가 벽을 향한은 통하지 않는 소식이기(佛祖面壁不通消息이니) 발을 옮겨 앞으로 가려면 한 바탕 가시밭이라(移步進前一林荆棘이리).

한줄기 범비 중생계 적시도다

태고종 종정·선암사 방장

혜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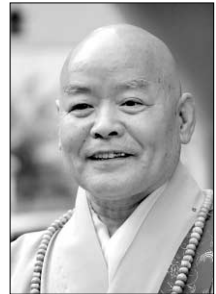
다리위에 서서 흘러가는 물을 내려다보면 옛사람의 말처럼 물이 흘러가는지 물은 가만히 있고 다리위에 서있는 내가 흘러가는지를 분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인지 시간위에 서있는 내가 흘러가는 것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결제(結制)를 한지가 옛것 같은데 어느 해 해제(解制)일이 되었습니까. 해제일이 되면 견(見), 문(聞), 의(議), 삼사(三事)를 가지고 자자건도를 하는 날입니다. 총림대중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앞에 내놓아보시오 도(道)를 공부하는 사람이 결제 해제가 따로 있었습니까. 불교의 요체(要諦)는 수행을 통하여 지혜를 증장(增長)하고 지혜의 힘으로 중생을 요이(饒益)케 하는 것입니다.

협산선회(峽山善會) 선사는 화정(花亭) 선사의 문하에 들어가 그 법을 잇고 협산에 들어가 발을 일구며 수행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중국의 고승입니다. 하루는 어떤 수행자가 협산선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사문(沙門)이 해야 할 행(行)입니까?” 이때 선사가 “움직이면 병이 생긴다.(塵則生病)”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동산양계 선사는 중국 회계(會稽) 사람으로 위산영우 선사의 뜻을 받들어 운암담정의 제자가 된 선승입니다. 어느날 한 스님이 동산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추위

나 더위가 오면 어떻게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선사가 대답하였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겠지.” 그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자 선사가 대답하였습니다. “추울 때는 추위에 뛰어들고, 더울 때는 더위에 뛰어드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양선사의 번득이는 선기(禪機)와 수행자의 행이 어때야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종락)

땅에 꽃씨를 뿌리는 것처럼 중생의 복밭에 부처의 선근종자를 뿌리는 일이야말로 수행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해제 기간에는 폐허 속에서 연꽃을 피게하는 구도자(求道者)의 정성으로 수재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행화(行化)의 덕을 베푸는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흘러흘러 나도 또한 흘러가니 스스로의 헛웃음 소리에 천지가 놀라네 사해의 향기로온 비람이로부터 일어나서 한줄기 범비가 중생계를 적시는 도다.

世間流我亦流一笑一聲天地驚 (세간천류이역류 일소일성천지경) 四海香風從此起法雨普潤阿沙界 (사해향풍종此起法雨普潤阿沙界) (사해향풍종자지 범우보운주사계)

매순간 깨달음 끊어짐이 없구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識如如有好思量百十由一念收 (수지별유호사량백십유일념수) 좋은 사람 따로 있음을 그 누가 아라 순식간에 백십순순견어 들이니 宿障舊殃曩天雪無限人天一味同 (숙장구영탕옥설 무한인천일미동) 속세의 그 업장을 눈같이 녹여서 끝없는 인연 한 맛을 맛본다.

有無生斷露真常一點孤明若太陽 (유무생단로진상일점고명약태양) (광장자유정계설 하필남남강거양)

廣場自有清溪舌何必喃喃更擲揚 (광장自有清溪舌何必喃喃更擲揚) 밭에 부처의 선근종자를 뿌리는 일이야말로 수행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問, 如何是眞佛眞法眞道, 乞垂開示 詰問, “어떤 것이 진실된 부처, 진실된 법, 진실된 도입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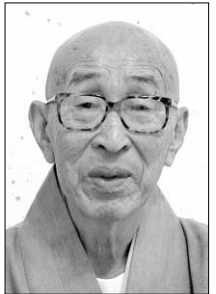
師云 眞佛眞法眞道, 乞垂開示 詰問, “어떤 것이 진실된 부처, 진실된 법, 진실된 도입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者處處無礙淨光是 부처님 우리들 마음이 청정한 것이며, 법이란 우리들 마음이 지혜의 광명인 것이며, 도란 어떠한 곳에도 걸리지 않는 깨끗한 빛인 것이다. 어떠한 곳에도 걸리지 않는 깨끗한 빛인 것이다.

問, 如何是眞佛眞法眞道, 乞垂開示 詰問, “어떤 것이 진실된 부처, 진실된 법, 진실된 도입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일 현재 발표된 해제법어입니다. 전문과 이후 나오는 총림의 법어는 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三即一, 皆是空名, 而無實有. 불 법 도 이 셋은 바로 하나이고 모두 헛된 이름에 불과하며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如眞正學道人, 念念心佛門斷. 진정한 수행자라면 한 순간도 순간도 마음에 깨달음의 작용이 끊어짐이 없다. 自達摩大師從西土來, 祇是覓箇不受人惑底人.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온 이래로 단지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은 사람을 찾았던 것이다. 後遇二祖, 一語便了, 始知從前虛用功夫. 뒤에 비로소 이조 해가를 찾았을 때, 달마의 한마디에 홀연히 깨닫고, 비로소 지금까지 헛되이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山僧今日見處, 與祖佛不別. 지금 산승이 설하는 불법의 견해도 조사나 부처의 지혜 작용과 다르지 않다. 若第一句中得, 與祖佛爲師. 만약 처음 한 마디(第一句)에서 깨달으면 조사나 부처의 스승이 된다. 若第二句中得, 與人天爲師. 만약 두번째 말(第二句)에 깨달으면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된다. 若第三句中得, 自求不了. 만약 세번째 말(第三句)에 깨달으면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함양 벽송사, 禪會 전통 복원

통이 경남 함양 마천면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500년 만에 되살아날 전망이다. 벽송사가 근대 한국불교에서 사라졌던 ‘선회(禪會)’를 9월 8-18일 산철 결제 기간 동안 복원하는 것.

선회는 안개가 갠 산철결제 기간 동안에도 실감을 병행하면서 교학 강의와 논강으로 선과 교를 뒤는 오랜 전통. 그러나 불립문자(不立文字), 사교인선(捨教入禪)이 강조되면서 해방이후 한국 선원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최근 들어 선사들의 간화선 범회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선을 주제로 강의와 논

강이 함께 이뤄지는 것은 벽송선원이 유일하다.

‘선회’의 하루 일과는 새벽 3-5시, 오후 5-9시 잠들기 전까지도 입선에 들어 실감을 구하고, 오전 8-10시 두 시간은 강의, 오후 2-4시 논강을 벌인다. 선주(禪主)인 월암 스님이 강사를 맡아 중국 황벽 선사의 <전심법요(傳心法要)>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논강은 월암 스님이 저술한 간화선 지침서인 <간화정교>를 교재로 사용한다. 선회 마지막 날에는 ‘간화선과 현대포교 방법론’을 주제로 안국선원 수

9월 8일부터 10일간

강의·논강·선수행으로 진행

현대포교 방법론’을 주제로 안국선원 수

불 스님의 특강도 진행된다.

지리산 자락의 벽송산 벽송사는 벽송지엄(德松智嚴·1464-1534) 스님이 창건한 선·교의 중심사찰로 태고보우-원암훈수-귀곡각운-벽계정심-벽송지엄-부용영관-청허휴경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간화선맥을 이어왔다. 이번 병술년 하안거에는 월암 스님을 비롯해 10명의 스님이 방부를 들였고,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도 결제대중으로 참석했다.

월암 스님은 “벽송사는 조선불교에서 보기 드물게 환성지안(1664~1729) 선사에게 의해 선원과 강원이 한곳에 존재했던 곳으로 해화전문 교장을 지냈던 초월동조 선사까지 약 300년간 선교겸수의 전통이 이어져 온 곳”이라고 말하고 “하안거 해제 직후 비구스님 30명 비구니스님 30명이 이미 방부를 들였다”고 밝혔다.

(055)962-5661 조용수 기자

선 계 문

공 고

대한불교 원효종 종도(승려)들에게 고함.

- 본인 김대관은 2005. 12. 14.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었습니다.
- 본인은 임시종정으로 취임하여 총무원장 서리, 총무원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임명하고 중헌과 증법에 따라 중회의원 선거를 시행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 2006. 3. 27. 중회의원선거가 중헌과 증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2006. 6. 12. 중회의원들 중에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 해괴한 문서가 나돌아 본인은 중회의원 선거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가) 본인이 검토하여 본 바 첫째로 중헌 제2장 종도(승려)에 관한 규정과 중회법 제2조에 의하여, 중앙종도회 회장(승려회장)과 총무원장이 각 교구에 배정할 중회의원정수를 합의하여, 임시종정의 결정을 받아야 하고, 둘째로 중앙종도회장은 대한불교 원효종 종도회법에 의하여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종정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종도회장에 대하여 종정의 임명을 받지 않고 각 교구에 대한 중회의원 정수를 배정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나) 중헌 제64조에 본종은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및 각 도에 교구 중무원을 둔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15개 교구를 설치하고, 21명의 중회의원을 선출하도록 배정한 다음, 15명의 의원만 선출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다) 중회의원도 수 명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선출된 것이 밝혀졌으므로, 본인은 2006. 6. 22. 총무원장에게 중회의원선거에 관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 2006. 7. 15. 까지 제출하겠다고 하고 금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은, 2006. 3.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고 공고한 중회의원 15명 모두가, 그 선출과정에서 위와 같이 중헌 제2장의 종도에 관한 규정, 중헌 제12장 교구 중무원에 관한 규정, 중회법 제2조 규정 등에 위반되었으므로 그 당선이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그 무효인 중회의원으로 구성된 중회에서 2006. 4. 4. 선출한 중단임원의 선출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 본인이 중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임명했던 중단임원에게 위와 같은 실책이 있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 다음과 같이 각 그 직에서 해임을 합니다. (가) 중령 2005-2 종정의 임원에 대한 서리임명규정 제4조 2항에 의하여 중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임명한 총무원장서리를 해임한다. (나) 중령 2006-1 중회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명 모두를 해임한다. (다) 전시한 바와 같이 위 각 교구중무원의 설치가 중헌 제64조에 위반하여 설치되었으므로 위 각 교구 설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따라서 그 교구에 따라 임명된 각 교구중무원장 임명도 중헌 제64조에 위반되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 본종의 종도들은 이 선계문의 숙지하고, 차후 중헌증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중헌증법에 따른 임시종정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시고 중단화합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이 선계문 반포이전의 중헌증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중단 재조직에 적극 협력하는 종도(승려)들에 대하여서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하여 문책하지 않겠으나, 이후 중헌증법을 위반하고 중헌증법에 따른 임시종정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중헌증법과 국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할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계문을 보면 현재 중단의 임원이 모두 해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개별 해임통지는 생략합니다.)

2006. 8. 8.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벽송 김대관

2006. 8. 8.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벽송 김대관